

주요 신흥국 동향 모니터링

중남미 (2014. 1분기)

-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



2014년 4월 17일

작성: 선임조사역 최민이 (3779-5711)
조사역 허성희 (3779-5712)
조사역 김지용 (3779-5716)
확인: 실장 김주영 (3779-5702)

lucia@koreaexim.go.kr
seonghee@koreaexim.go.kr
jyk@koreaexim.go.kr
jykim@koreaexim.go.kr

< 목 차 >

I. 국별 주요 동향	1
II. 국별 지급능력 분석	2
1. 브라질	2
2. 멕시코	4
3. 콜롬비아	6
4. 페루	8
III. 국별 주요 경제지표	10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닌 집필자 개인의 견해입니다.



해외경제연구소

I. 국별 주요 동향

□ (브라질) 물가상승 압력 지속으로 기준금리 인상 및 헤알화 강제로 전환

- 가뭄으로 인한 식료품가격 인상,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 헤알화 약세 등으로 2013년 중 소비자물가(연평균)는 6.2%를 기록함.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수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2014년 1월 말 달러당 2.42로 하락했던 브라질 헤알화는 이후 강제로 전환됨. 브라질 정부도 물가안정 등을 위해 헤알화 강세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 통화정책 움직임에 따라 향후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멕시코)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으로 폐소화 강세 및 에너지개혁법 관련 시행령 마련 중

- 연간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액의 약 50% 이상이 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등 대미의존도가 높아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임. 2014년 초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폐소화의 가치가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하고 금년 2월 국제신용등급 상향조정(Baa1 → A3)의 영향으로 폐소화는 강세로 돌아섬.
- 2013년 12월 석유 및 에너지시장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에너지 개혁법이 멕시코 국회를 통과함. 멕시코 에너지 시장은 75년 만에 민간에 개방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은 2014년 4월 중 완료 예정인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 (콜롬비아) 경제성장 등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세

- 경제성장,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상승하여 2014년 2월 2.3%를 기록함. 중앙은행의 목표범위(2%~4%) 이내로 낮은 수준이나, 물가상승 압력 지속으로 인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페루) 견고한 성장세를 고려하여 기준금리 동결

- 페루 중앙은행(BCRP)은 2013년 11월 성장률 둔화를 우려하여 기준금리를 4.25%에서 4.0%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으나, 2014년 1분기 견고한 성장세 시현, 안정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존 4.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II. 국별 지급능력 분석

1. 브라질

(1) 경제구조

□ 중남미 최대의 내수시장 보유

- 2013년 기준 중남미 전체 GDP의 약 42%를 점유하고 있는 중남미 제1의 경제 대국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15~64세 인구가 전체의 67.8%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입액 규모가 신흥국 중 중국에 이어 2위임.

□ 철광석, 대두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제조, 금융 등 다변화된 산업구조 보유

- 철광석, 원유, 석탄 등 70종에 이르는 광물자원과 설탕(생산량 기준 세계 1위), 커피(1위), 대두(2위) 등 풍부한 농산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 부국임.
- 또한 운송 장비, 자동차, 항공기 등 제조업과 금융업이 GDP에서 각각 13%, 15%를 차지하는 등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2) 주요 경제지표

□ 재정건전성 악화와 경상수지 적자 증가 지속되나 외환보유액은 FDI 유입으로 확대

- **(재정수지)** 경기부양에 따른 세제혜택, 국영은행에 대한 여신지원과 공공부문과 사회보장 지출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최근 재정지출 삭감안(185억 달러 규모)이 발표되었으나, 2014년 월드컵 개최와 대선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재정건전성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철광석, 원유, 대두 등의 수출가격 하락 등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2014년에는 헤알화 약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개선, 월드컵 개최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폭 축소 등이 기대되나 국내투자 증가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6%를 기록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2013년 말 기준 브라질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3,588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임. 2014년에는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FDI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3) 경제 현안과 정책대응

□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수차례 인상

- 고용 증가와 명목임금 인상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식료품가격 상승, 헤알화 약세 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2014년 2월에는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5.7% 상승하여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음. 2014년 4월 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1%로 인상하여 2013년 4월 이후 아홉 번째로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등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음.

□ 비슷한 소득규모 국가에 비해 열악한 인프라 개선 추진

- 세계경제포럼(WEF)의 인프라부문 평가에서 브라질은 2013년 114위로 중남미에서 최하위권에 속함.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7개 분야(고속도로, 철도, 항구, 고속철, 공항, 원유 및 가스, 전력)에 2,350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계획을 2013년 2월 발표함.

(4) 분석의견

- 브라질은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 저하, 원자재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2014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8%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 총외채잔액 중 단기외채 비중이 32%대로 높지 않은 수준이고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과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규모 축소로 인한 자금유출 우려가 있으나 미국의 경기회복으로 인해 수출상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외지급능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 멕시코

(1) 경제구조

□ 원유,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외에 제조업 등도 발달

- 멕시코는 아연(매장량 세계4위), 셰일가스(4위), 동(5위), 은(6위)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원유생산량은 세계 10위(중남미 1위)로 자원부국임. 이를 토대로 GDP 대비 광업 비중이 약 9%에 달하며, 제조업 비중도 중남미국가 중 가장 높은 18% 수준임.

□ 대미의존도 지속과 원유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 증가

- 멕시코 수출의 71%, 외국인 직접투자유입액의 55%, 외국인 포트폴리오 유입액의 51%를 미국이 차지할 정도로 대미 경제의존도가 높음. 멕시코 정부는 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다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대미의존도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원유가 멕시코 재정수입의 약 33%¹⁾를 차지하는 등 원유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멕시코는 원유수출 가격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2) 주요 경제지표

□ 인프라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는 증가할 전망이나, 미국 경기회복 등으로 경상적자는 축소될 전망

- **(재정수지)** 취약한 세수기반, 높은 원유 수입의존도(약 33%) 등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하는데 비해 연금과 사회복지 지출 증가, 연료보조금 등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2014년에는 소득세 신설 등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확충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와 건설업에 대한 지출 증가 등 확장적 재정정책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4.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상품수지, 소득수지와 서비스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교포 송금 등 안정적인 경상이전수지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1% 대를 기록하고 있음. 2014년에는 대미 수출 회복으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지급 증가 등 소득수지 적자 확대가 예상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1.9%를 기록할 전망이다.

1) 최근 5년 평균(2009-13년)치임.

-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FDI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3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5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어 2013년 말 역대 최고 수준인 1,75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도 이와 같은 증가추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3) 경제 현안과 정책대응

□ 에너지, 통신, 세제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추진

- 멕시코는 2013년 중 세제, 노동,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함. 특히, 과거 독점기업이 주를 이루었던 정보통신과 에너지부문의 민간 개방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IMF는 멕시코의 개혁이 잠재성장률을 3.5%에서 4%대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측함.

□ 성장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생산성 향상 등의 국가발전계획 추진

- 멕시코는 2013년 5월 향후 6년간 5대 국정운영목표²⁾, 정책과 실천행동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13~18년 멕시코 국가발전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의 핵심 목표는 '멕시코의 최대 잠재력 도달'로 3대 전략³⁾을 통한 5대 국정목표 달성을 추진할 예정임.

(4) 분석의견

- 미국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대, 에너지, 통신부문 등 다방면에 걸친 정부 개혁 등에 힘입어 2014년에는 3%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멕시코의 GDP 대비 외채비중은 약 24%로 높지 않은 수준이며, 멕시코 정부의 외채만기 연장 등 외채구조 개선 노력 등으로 단기적인 외채부담이 축소되는 추세임. 여기에 **외환보유액과 외국인직접투자액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대외지급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2) 5대 국정목표: ① 평화로운 멕시코 ② 통합된 멕시코 ③ 양질의 교육제공 ④ 번영하는 멕시코 ⑤ 국제사회의 책임국가로서의 멕시코
3) 3대 전략: ① 생산성 향상 ② 현대적이고 국민과 가까운 정부 ③ 양성평등

3. 콜롬비아

(1) 경제구조

□ 광산업과 건설업이 경제성장 견인

-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유치 정책으로 지속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설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2012년 기준 광산업과 건설업의 GDP 대비 비중은 각각 12.3%, 8.5%임.

□ 석탄, 원유 등 1차 상품 중심의 수출구조

- 2012년 기준 석탄, 원유 매장량이 각각 중남미 1위, 6위인 자원부국으로 수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70%)이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함.

(2) 주요 경제지표

□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축소되는 한편 외환보유액 증가 전망

- **(재정수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정부 수입 감소,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2012년을 제외하고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2014년에도 총선·대선 실시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로 GDP 대비 1% 미만의 소규모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상품수지는 석유, 석탄, 커피 등의 수출로 소규모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해외 아웃소싱 등으로 인한 서비스 수지 적자, 외국기업의 해외송금으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2014년에는 파업철회로 인한 석탄과 커피 수출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 확대가 예상되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3.3%를 기록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정부의 에너지와 인프라 투자 확대정책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외환보유액이 459.2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3) 경제 현안과 정책 대응

□ 플랜트, 자원개발 등을 위해 투자환경 적극 개선 추진

- 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한 투자환경 개선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수입관세, 부가세 감면 등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그 결과, 콜롬비아는 기업경영여건에서 189개국 중 43위, 중남미 국가 중 칠레, 페루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양호한 기업경영여건으로 외국인투자 유입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도로, 철도 등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 추진

-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148개국 중 92위 수준으로 도로(130위), 철도(113위), 항만(110위), 공항(96위) 등 주요 인프라 기반 시설이 전반적으로 취약함.
-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개발계획 2010-14’에서 민자도로 건설, 민자 철도 운영,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운영 등 인프라 각 부문별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2013년 11월 새로운 인프라 법안⁵⁾ 통과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4) 분석의견

-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석탄과 커피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도 축소되고 있음. 또한 지속적으로 외환보유액도 증대되고 있음.
- 외환보유액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2013년 기준 단기적 지불수요(단기외채 + 3개월분 수입액)의 132%를 기록하는 등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하여 유동성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4) FDI 유입액 추이: '12년 156.5억 달러 → '13년 173.5억 달러(추정) → '14년 176.6억 달러(전망)

5) 인허가 절차, 토지 수용 문제, 환경영향평가 등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관련 방안 포괄

4. 페루

(1) 경제구조

□ 구리, 금, 천연가스 등 자원 중심의 수출 구조 지속

- 은(세계 1위), 구리(세계 3위), 금(세계 8위)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여 상품 수출 중 광물자원이 60%를 차지함. 이에 따라 구리(총 수출의 23%), 금(총 수출의 22%) 등 광업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갖고 있어 해당 광물의 가격변화에 상품수지가 민감하게 반응함.
- 또한 남미 최대 규모의 카미세아(Camisea) 가스전 개발로 2012년 기준 천연가스 매장량과 생산량 측면에서 중남미 5위를 기록한 천연가스 순 수출국임.
 - 상품수출 중 천연가스 비중은 2013년 12.3%로 증가추세*이며, 대규모 가스 파이프라인 확장 사업을 통해 천연가스 생산량은 확대될 전망이다.

* 2011년 10.2% → 2012년 10.8% → 2013년 12.3%

□ 관광지로서의 높은 잠재력

- 페루는 마추픽추, 쿠스코 등 잉카문명 유적지를 보유하여 관광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관광산업⁶⁾은 총서비스 수출의 52%이며 총 수출 중 광물, 천연가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2) 주요 경제지표

□ 재정수지 악화되나 경상수지 개선과 FDI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은 증가

- (재정수지) 광물가격 하락⁷⁾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축소 추세를 보임. 2014년에는 인프라 투자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비슷한 0.9%가 전망됨.
- (경상수지) 금, 구리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소득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2014년에는 광물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로 동 비율은 4.8%로 축소될 전망이다.

6) 2013년 기준 관광객 수 증가율은 남미 평균(2.4%)보다 높은 11%를 기록함.

7) 재정수입 중 광물 관련 세입 비중은 14%로 재정수지가 광업에 의존하는 구조임.

-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적자에도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4년에도 경상수지 개선에 더해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665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3) 경제 현안과 정책대응

□ 수출 확대를 위한 광산 개발에 적극적

- 페루정부는 수출, 세입 확대를 위해 일반광업법(Ley General de Minería)⁸⁾을 통한 광산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2013년 12월 48억 달러 규모의 토로모초(Toromocho) 구리광산이 생산 개시되었으며, 2015년에는 라스밤바스(Las bambas) 구리광산이 생산에 들어갈 예정임.

□ FDI 유치를 위한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 페루는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 따른 외환유동성 확보와 낮은 기술수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그러나 경직적 노동시장, 열악한 인프라, 복잡한 행정절차 등은 투자 저해 요인으로 지적됨.
-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전력부문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세제 개편 등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철폐위원회 설립을 통해 우호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2012년 페루의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은 122억 달러로 중남미 5위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49%로 중남미 1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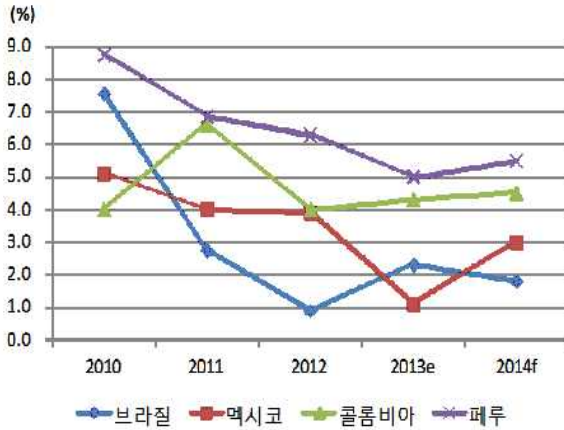
(4) 분석의견

- 구리, 금 등 1차 상품 위주의 산업구조로 대외변동성에 취약하지만, 당분간 1차 상품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와 재정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페루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단기 지불수요(단기외채+3개월분 수입액)의 2.8배로 충분한 수준이며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증가추세 지속, GDP 대비 낮은 단기외채 비중(12%)을 고려할 때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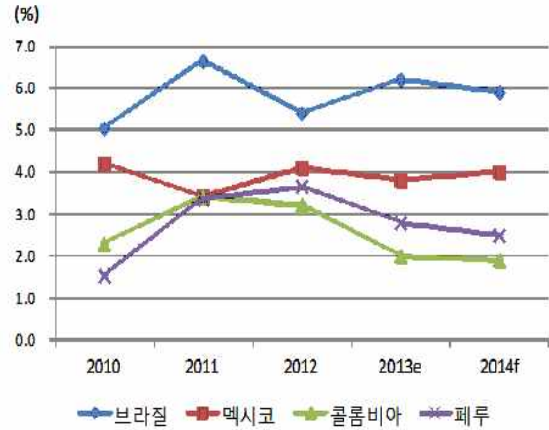
8) 일반광업법: 광업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배당금, 로열티 해외송금 허용, 투자기업과의 경영안정계약을 통한 투자안정성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음.

Ⅲ. 국별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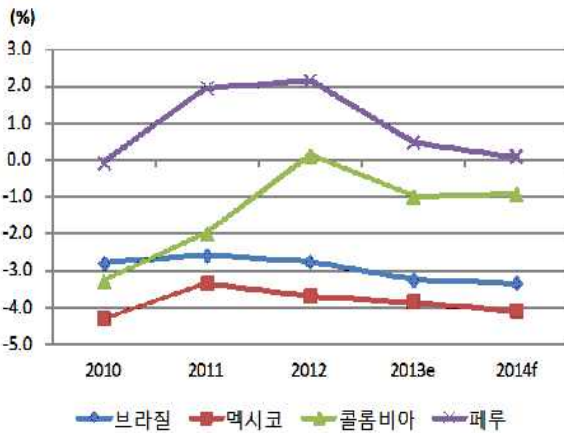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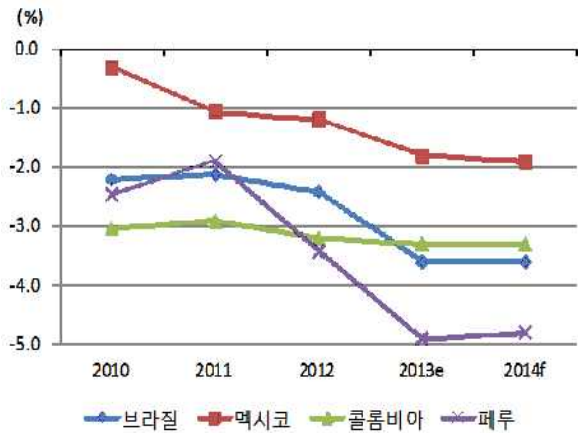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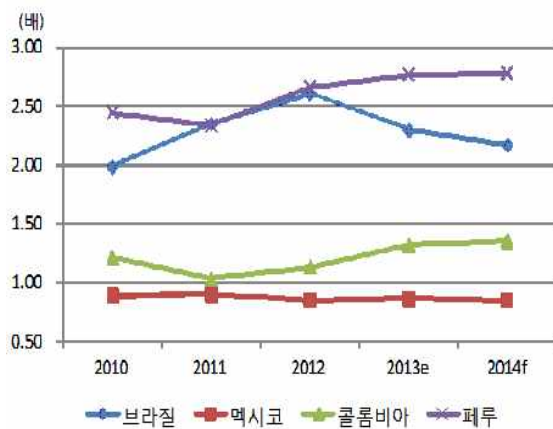
재정수지/GDP



경상수지/GDP



외환보유액¹⁾



환율(미 달러화 대비)²⁾



주 1) 외환보유액/(단기외채+수입금액의 3개월분)

2) 2010년초 환율 = 100

자료: IMF, EIU, IIF, OECD.